



보 도 자 료

상설중재재판소 사건번호 2018-55 중재:

1. 메이슨 캐피탈 엘.피.(미국) 2. 메이슨 매니지먼트 엘엘씨(미국) 대 대한민국

2019년 9월 17일, 헤이그

2019년 10월 2-4일 공청회

메이슨 캐피탈 엘.피.(미국) 및 메이슨 매니지먼트 엘엘씨(미국)와 대한민국간의 중재 관련, 2019년 10월 2-4일 기간 동안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동 중재절차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07.06.30)에 의거하여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1976)에 따라 진행 중이며, 상설중재재판소는 동 중재의 사무국을 수입중이다.

공청회는 미국 뉴욕 소재의 다음 장소에서 개최된다:

뉴욕국제중재센터 (NYIAC)
150 East 42nd Street
New York, NY 10017
United States

각일, 공청회는 오전 9:30 부터 오후 5:30 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점심시간 1시간 포함)

공청회는 기밀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에 공개된다. 일반인은 공청회실 입장이 제한되나, 뉴욕국제중재센터 내 지정된 장소에서 공청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상기 지정 장소에서 시청을 희망하는 일반인은 2019년 9월 25일까지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송부하여 사전에 등록 해야한다. (이메일:wvanbanning@pca-cpa.org)

공청회의 기록은 회의 종료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상설중재재판소 사건 기록보관소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중재 배경

동 중재는 2018년 메이슨 캐피탈 엘.피. 및 메이슨 매니지먼트 엘엘씨의 두 미국 기업에 의해 시작되었다. 당사자들의 분쟁은 2015년 7월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2019년 1월,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사전 이의제기를 하였다. 이후 당사자들은 피청구국의 사전 이의제기에 관하여, 증인 진술서, 전문가 보고서, 사실 증거자료 및 법적 권한이 첨부된 서면을 2회 제출한 바 있다. 다가오는 공청회에서는, 상대 당사자가 앞서 제시한 증인 및 전문가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하고, 중재판정부를 대상으로 이를 발표할 기회가 각 당사자에게 부여될 예정이다.

중재판정부는 Professor Klaus Sachs (의장중재인), The Rt. Hon. Dame Elizabeth Gloster 및 Professor Pierre Mayer 로 구성된다.

동 사건에 관한 추가 정보와 더불어 중재판정부의 명령과 결정, 당사자들의 서면 등은 상설중재재판소 사건 기록보관소(<https://pca-cpa.org/en/cases/198/>)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 * *

상설중재재판소 소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적으로 1899년 헤이그 회의에서 설립된 정부간기구이며, 현재 122 개국이 동 재판소의 당사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에 소재하며, 국가, 국가기관, 정부간기구 및 민간 당사자 등의 다양한 주체로 구성되는 중재, 조정, 진상조사 및 기타 분쟁해결 절차의 진행을 담당한다. 현재 재판소의 국제사무국은 국가간 분쟁 4 건, 투자자 대 국가간 중재 107 건, 국가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한 사건 55 건 및 기타 분쟁 2 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상설중재재판소 관련 상세내용은 재판소의 홈페이지(www.pca-cpa.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락처: 상설중재재판소
이메일: bureau@pca-cpa.org